

끊임없는 요기는 끊임없는 동반자다.

오늘은 마야의 정복자인 승리의 보석들의 특별한 집회다. 오늘의 집회에서는 밥다다가 어떤 자녀들을 보고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밥다다에게 끊임없이 충실했던 자들, 끊임없이 바바의 발자취에 그들의 발걸음을 두고 한결 같으며 협조적인 동반자인 자들; 매 순간 아버지와 봉사에 끊임없이 몰입되어 있으며 생각에서조차 가장 고귀한 행동수칙의 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가장 고귀한 행동수칙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 자녀들은 여러 생 동안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생각에 있어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와 함께 앉고 매 순간, 그리고 모든 발걸음에 그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가치 있는 자녀들은 지금 이 때에 아버지에게서 여러 생 동안 동반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 영혼들은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고, 또한 숭배자로서 동반자인 면에서 여러 다른 이름과 형태로 사카르 아버지의 동반자일 것이다. 그들은 지식을 가진 영혼으로서 뿐 아니라 신봉자 영혼으로서도 동반자일 것이다. 그런 특별한 영혼들은 지금 이 때에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는 축복과 “따뜨왈” (브라마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에게도 해당된다)의 축복을 받는다.

너희 마하라티들은 각자가 어느 정도로 아버지의 미덕, 지식, 그리고 봉사에 그와 대등해졌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의 동반자인지를 너희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대등함은 가까움을 불러올 것이다. 너희의 현재 단계, 미래 단계, 그리고 매 순간 동반자가 되는 경험은 너희들을 여러 생 동안 이름, 형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동반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죄의 정복자가 되는데 있어서 동반자일 것이며, 또한 비끄람 왕의 시대에도 동반자일 것이다. 모든 역할, 모든 가문에서 너희들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의 기념비가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것이다, 즉 우리는 함께 상승하고 함께 하강할 것이다”이다. 너희들은 상승하는 때에, 그리고 하강하는 때에, 밤낮으로 끊임없는 요기이며 끊임없는 동반자이다. 너희가 합류시대에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는데 완전한 정도에 따라 그만큼 가까운 친척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넘버원 영혼은 드라마 안에서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런 넘버원 영혼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자들도 또한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 요즈음에는 어떤 영혼이 대통령이나 수상으로서의 일시적인 지위를 얻을 때 그의 가족도 또한 중요해진다. 따라서 끊임없이 고귀한 영혼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는 영혼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저 약간의 격동이라도 일어날 때 동반자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행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는가를 좀 보아라. 오래된 것들이 중요성을 갖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처럼, 너희 영혼들의 가치에 관해 말하고 너희들을 칭송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너희에게서 은혜를 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그런 고귀한 영혼으로 여기느냐? 너희가 아버지의 칭송을 노래하는 정도만큼 사람들이, 그 보답으로, 그런 영혼들의 칭송을 노래할 것이다. 왜 그들은 현재 너희의 칭송을 노래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이 때에 봉사를 하는데, 왜 끝에 가서 모든 결실을 받느냐? 현재 뭔가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적다. 너희들은 그 이유를 아느냐? 지금 이 때에 너희들은 때때로 너희 자신을 아버지와 혼합한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칭송을 노래하다가 너희 자신의 칭송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너희가 하는 말은 매우 다정하지만 “내 것”이라는 너희의 의식이 영혼들이 가진 느낌을 끝내버린다. 이것이 가장 크고도 가장 미묘한 버림이다. 이 버림을 바탕으로 넘버원 영혼이 넘버원의 행운을 창조했고, 여덟 보석들이 번호를 얻는 바탕도 또한 이 버림이다. 매 순간, 모든 생각에 “바바, 바바”가 기억되어야 하고, “내 것”이라는 의식이 끝나야 한다. “나”라는 의식이 없을 때는 “내 것”의 의식이 없다. “내 성질, 내 산스카라, 내 성질, 내 임무, 내 이름과 명성”: 이 모든 것에 있는 “내 것”의 의식이 끝나야 한다.

“나”와 “내 것”의 의식을 끝내는 것이 대등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다. 꿈에서조차 “나”의 의식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희생의 불 속에 “나”라는 의식의 말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것이 승리의 마지막 북소리가 나올 마지막 희생제물이다.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집단적인 형태로 이 마지막 희생의 소리를 퍼트려라. 그러면 다섯 원소들이 모두 각종의 성공의 화환을 너희 목 둘레에 둘러줄 것이다. 현재는 자연원소들조차도 때때로 봉사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희생을 할 때는 너희가 숭배될 것이며 행복의 북소리가 퍼질 것이다. 모든 영혼들이 그들의 오랜 소망을 모두 이룰 것이며, 칭송의 종을 발목에 걸고 춤출 것이다. 그럴 때야 신봉의 마지막 산스카라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 때에 그런 신봉자 영혼들은 그들이 특별히 애호하는 신인들인 너희에게서 그들의 신봉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신봉자 영혼이 되는 축복을 받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때에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

은 통치자의 지위를 가지고 평범한 왕국을 다스릴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른 영혼들이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공여자, 모든 이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캄데누 영혼이 되었느냐? 그런 영혼들은 끊임없이 가까운 동반자들이라 일컬어진다. 앗차.

끊임없이 용감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옥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 매 순간, 모든 생각에 가장 고귀한 버림을 통해 고귀한 행운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자들에게, 발걸음마다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에게, 매 순간 모든 보물들로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자들에게, 무한한 보물들로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완전한 목표와 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완전하고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와 다디지, 그리고 디디지의 만남:

너희들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집회를 열었느냐? 너희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냐? 지금까지 너희가 한 것은 무엇이든 아주 좋았고, 지금 할 것도 또한 좋을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위한 성공의 바탕은 무엇이나? 일반적으로도 어떤 과업의 성공의 바탕은 무엇이나? 너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하기를 바랄 때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희가 최근에 가졌던 컨퍼런스(회의)의 성공의 바탕은 중요한 인물의 참석이었다. 연사들의 인격에 따라 소리가 더 크게 퍼진다. 너희들은 프로그램을 열 때마다 소리를 더 크게 퍼트리려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너희들은 특별한 인물이 와서 소리가 자동적으로 퍼질 수 있게 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인물이 수단이 된다. 세속의 배경을 가진 인물들은 외적으로 소리를 퍼트리는 도구가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 특별한 도구 봉사자들은 현재 봉사에 어떤 인물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의 인격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그에게로 끌어당긴다. 그러면 현재 어떤 종류의 인격이 필요한가? 순수성이 너희들의 인격이다. 너희가 순수성을 갖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순수성의 인격이 영혼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이게 만들 것이다. 드라마에서, 산야시들의 순수성의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머리를 숙인다. 순수성의 인격은 중요한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숙이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 사람들은 오직 너희의 순수성의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만 머리를 숙일 것이다. 향의 향기가 남들을 끌어당기듯이 남들이 너희에게 오자마자 순수성의 향기를 경험해야 한다. 그들이 어디를 보더라도 오직 순수성만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현재 원하는 경험인데, 그것은 그들이 어디를 봐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이 아무리 위대하거나 유명해도 순수성의 파동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그가 이름, 명성, 성공의 칭송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의 파동이 어디에서도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일시적인 성취의 매력은 있지만 순수성의 매력은 없다. 이제 너희의 인격이 남들을 자동적으로 끌어당기도록 순수성의 인격이 너희의 실제 삶 속에 필요하다. 수상이 어딘가를 방문할 때는 그의 인격 때문에 모든 이가 그곳으로 달려간다. 따라서 이것이 넘버원 인격이다. 너희들은 이제 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종교적인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이 인격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여기에서 그것을 찾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들은 너희 어머니들과 딸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제 그들은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여기며 너희 앞에 와야 한다. 그들은 전에 그들이 이해했던 것과 지금 보는 것 사이의 차이를 경험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자신의 지각 속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너희들 모두의 실제 삶 속에 있음을 느껴야 한다. 이것이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쓰러트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마하라티를 쓰러트리는 것의 의미다. 따라서 그들이 이 인격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너희들의 형태가 모든 성취의 자식 같이 되어서 모든 이가 자동적으로 끌리게 되어야 한다. 그들이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오직 성취만을 경험해야 한다. 따라서 성취가 자식이고, 모든 성취의 형태도 또한 자식이다.

현재 너희들은 노력을 해야 하고, 돈과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의 과업이 이 순수성의 인격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현재는 파동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너희들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 이제 너희의 파동을 퍼트려서 남들이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라. 그런 다음 축복의 공여자와 대 기부자의 태도를 가지고서 파동과 분위기를 변화시켜라.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절실하게 찾으며 궁금해하고 있다. 목마른 영혼들이 아직은 대양이 강물과 함께 하는 참된 곳을 소개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몹시 찾고 있다. 따라서 이제, 너희의 등대의 형태를 통해서 모든 이에게 그들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보여주어라. 앗차.

밥다다와 다디 장키의 만남:

런던에서도 종교적인 영혼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다. 너희에게 어떤 기회가 생기든, 단연코 영성의 매력의 장면이 있어야 한다. 순례지가 특별히 평화로운 곳이나 해방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이곳이 모든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느껴야 한다. 그들이 독특함과 소박함을 경험해야 하지만, 경험이 또한 강력해야 한다; 그들이 이것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무대에서 강연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므로써 너희들은 나중에 세계의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현재 사람들은 단순히 너희들을 그들의 프로그램에 초대하기만 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살아 있지 않은 상들을 그들의 눈이나 이마에 들어올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들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에 대한 칭송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를 것이다. 집회를 갖는 것은 좋다; 열의와 열성이 집회를 통해 늘어난다. 앗차.

아비약트의 고귀한 말씀: 버린 자, 크게 버린 자, 완전히 버린 자:

너희 브라민들은 무한한 산야시들이며 버린 자들이다. 너희의 버림의 이미지가 너희의 낡은 집을, 즉 너희의 낡은 몸과 낡은 몸에 대한 의식을, 버렸다. 너희들은 너희의 지각이 결코 그 낡은 집에 끌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 뿐 아니라 몸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버림의 첫 단계는 몸에 대한 의식의 버림, 즉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집, 즉 그 몸의 여러 신체기관조차도 버려야 한다. 어떤 신체기관도 자신에게로 너희들을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그 낡은 몸을 밥다다가 너희에게 맡긴 것으로 여겨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봉사를 위해 맡겨졌다.” 너희들은 마치 손님으로 그 몸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내 것”의 의식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손님(메흐만)으로 여기며 대(마한) 과업을 위해 몸을 사용하라. 너희가 몸의 의식을 버렸을 때 둘째 버림은 몸의 모든 관계들의 버림이다. 몸의 의식이 제거될 때, 영혼은 주인이 되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이 명량한 상태에 있다. 그들의 마음 속이나 얼굴에 어떤 불행도 있을 수 없다. 불행하다는 것은 하인의 징표다. 몸을 버림과 함께 크게 버린 자, 즉 세속의 관계와 영적인 관계에 대한 애착의 파괴자가 되어라. 애착의 파괴자의 징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혐오감이나 애착 또는 예속됨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에 대해 어떤 혐오감이 있다면 그 영혼의 결함이나 그 영혼이 행한 너희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거듭해서 너희의 지각을 방해할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기억하려 하겠지만 그 대신에 그 영혼이 너희 앞에 올 것이다. 애착을 가진 영혼은 미덕과 사랑을 가지고 지각을 끌어당기는 반면에, 혐오감을 가진 영혼의 지각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심에 의해 교란된다. 따라서 또한 이 카르마의 굴레도 버려라. 브라민이 된다는 것은 죄가 되는 생각과 죄가 되는 행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민들은 심지어 평범한 행동도 행할 수 없고, 따라서 죄가 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신체 기관은 행동에 연결되고, 그런 행동의 면에서 너희들은 심지어 죄가 되는 행동도 버려야 한다. 죄가 되는 행동을 버리지 않고는 순수한 행동을 행하는 자나 죄가 되는 행동의 정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또한 낭비적인 것도 버려라. 왜냐하면 낭비적인 말조차도 너희가 강력해지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죄가 되는 행동을 행하지는 않지만 낭비적인 행동은 행한다면, 그럴 때는 현재에 또는 미래를 위해 축적하지 못할 것이다.

버림이란 너희가 무엇을 버렸든, 그것이 물건이든 상황이든, 자아의 의식에서 벗어났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버렸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속한다. 따라서 너희들은 그에 관해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너희가 버린 뭔가를 도로 가져갈 수 없고, 생각에서라도 약속한 것은 도로 가져갈 수 없다. 앗차.

축 복: 장애의 정복자가 되어, 천사체를 의식하며 아버지의 보호 장막을 경험해라.

암릿벨라에 깨어나자 마자 너희의 의식 속에 ‘나는 천사다’를 가져와라. 아버지 브라마에게 그가 사랑하는 선물을 주어라. 그러면 밥다다가 너희들을 매일 암릿벨라에 그의 팔 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바의 팔 속에서 초감각적인 기쁨 속에 그네를 타는 경험을 할 것이다. 너희가 천사체 형태의 의식을 유지할 때는 어려운 상황이나 장애가 너희 앞에 올 때조차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한 보호 장막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보호 장막과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너희들은 장애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슬로건: 행복의 화신인 영혼들은 그들 자신의 본래의 단계를 통해 쉽게 역경에 대해 승리를 얻는다.

*** 음 산티 OM SHANTI ***